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영망진창'

화성시의회 교육위 행감서 사회복지 TF '업무 과부하'

설립 3년을 맞이한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이치에 맞지 않는 본부장 신설 및 관련 규정을 벗어난 공개채용 △재단 직원들의 요령부득 급여 테이블 △업무 과부하 사회복지 TF 운영 △전임 집행부의 떠남기시 위수탁시설 위탁 △방향성을 잃은 설립 취지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공명불선물세트 같은 위기를 극복할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22일 제3상임위 회의실에서 5일차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해 이 같이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전성균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구축된 조직 내 사회복지 TF를 거론했다. 보통 인력이 부족한 곳은 TF를 꾸릴 때 외부 인력을 받거나 일 처리 잘하는 직원을 모아 중복으로 꾸리는데 재단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별도 인원으로 구성, 인원 부족의 원인을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원준 대표이사는 "전임 대표이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듯 싶다. 대표이사로 부임하며 가장 어려운 것은 팀별로 직원이 부족해 업무가 상당히 초과되는 현상"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재단은 복지시설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이라며 직원들의 원칙 없는 급여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 급여 테이블을 보면 사회복지사 테이블로 급여는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수당은 공무원 수당을 받으면서 또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다. 출자출연기관인데 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가족수당 모두 수령한다. 지금 근무자 급여를 논하는 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여타 출자출연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체제 개선을 요청했다.

'2022년도 제3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거론하면서 관련 규정을 벗어난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통 연구직이 7급·8급 상당으로 채용된다. 대표이사의 설명에 전 의원은 당시 연구직 채용은 임기제 공무원 6급

으로 명시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는 선임연구원이기 때문에, 재단 경영기획팀장은 1·2차 공고에도 지원자들이 워낙 적어 6급 상당이라 표기를 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전 의원은 "규정에는 7급하고 8급 상당이다. 그게 방법론적으로 맞고 공무원 사회에서 올바른 절차"라며 복지정책과의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변경된 '인사 및 복무 규정' 신규 조문대비표의 제12조 채용구비서류와 2022년도 1월의 과장급 및 선임 사회복지사급 3명 채용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시 어떤 기준으로 개정됐고 해당자가 어떤 직급이기에 직무수행 계획서가 필요 없었는지 보고 부탁드린다"며 "과장급 및 선임 사회복지사급 채용은 자격요건이 규정상 8년 이상이나 공고에는 3년 이상으로만 돼 있다. 명시돼야 하나 공문엔 안 돼 있다. 해당 과에도 채용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다"며 업무 부실을 언급했다.

이날 이혜남 위원장은 재단 본부장 채용과 연관,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6월 본부장 필요성을 강조해

위원회에서 승인한 부분인데 아직 면접을 본다는 부분은 '업무를 등한시했다' '당시 본부장이 없으면 안 될듯 말했으니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자리였다'며 본부장 인건비면 직원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송선영 의원은 현재 재단 최대의 난제로 꼽히는 위수탁시설 직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임 시장 때 요구사항이 있어 별도 설치된 것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넘겨받은 위수탁시설이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나 위탁 형태가 잘못돼 민간위탁시설 임급과 700~1000여 만원 간극이 있어도 노동법상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처리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8대 시의원들이 주문한 것은 복지재단의 방향성이었다. 연구원들을 늘려 지역 복지와 관련한 정책이나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졌다"며 "첫 단추가 결국 잘못 끼어졌지만 계속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 부분하그의 형평성이나 여러 문제로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회 단신

백운호수 진입로 주행유도선 설치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 1) 의원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청계IC 상행선의 백운호수 진입로에 주행유도선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왕톨게이트를 지나 청계I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왕터널 진입부터 3·4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1·2차로 이용차량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해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주행유도선 설치를 통해 의왕주민 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백운호수를 더욱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22일 '2023년도 학교 숲 우수사업지'로 선정된 제물포여자중학교와 인화여자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관련자를 격려했다. (사진=인천시의회)

'학교 숲 우수사업지' 현장 방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22일 학교 숲 우수사업지로 선정된 제물포여자중학교(올해 신규 조성 분야 대상)와 부평여자고등학교(지난해 사후 관리 분야 최우수상)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학교 숲 우수사업지'는 신규 조성 분야 4개 학교, 활용·사후 관리 분야 3개 학교 등 전국에서 7개 학교를 산림청이 선정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사후 관리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신규 조성 분야 대상(제물포여중)과 사후 관리 분야 최우수상(인화여고) 등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지속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과 시 교육청, 수상 학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허식 의장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학교 숲 조성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숲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천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숲이 지속적으로 확대·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밑그림 완성

인천시의회 강화 남단 연구회 간담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인천시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연구회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박용철(국민의힘, 강화)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국민의힘, 용진)·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의원,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김필두·윤준희 차지경영컨설팅 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송일석 LCM에너지솔루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연구 배경·방법, 지정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제도,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강화군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화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요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2023년도 연구회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건에 모두 부합하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강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지역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와 관련해 류윤기 국장은 "타 시·도의 경우 이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우리 인천시도 강화 남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는 "강화·용진을 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고, 산업부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철 의원은 "강화·인천을 잇는 다리 건설,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의 중복지정 등 강화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논의에서 끝나지 않도록 인천시와 의회 그리

고, 강화군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과 강화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 및 개발 방식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루빨리 결정해 강화 성장의 초석이 되는 다리 건설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17개 안건 심의·의결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77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17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다음달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21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집행기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배상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사항은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잘 검토해 주민의 형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동수 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속의 편안한 쉼터

은성휴요양원은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신경쓰겠습니다.

다들! 언제까지 행복하게...

쾌적하고 마음편한 노후를 위한 곳... 부천 최고의 요양시설

입소관련 상담문의 032-683-3030

ES 은성휴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202, 은성프라자 2층 은성휴요양원(도당동 43-3)

홈페이지 : <http://www.eshyo.com>